

공조효과 확인 4+1 협의체 '파트'도 넘을까

내년 예산 수정안 통과...한국당 반발에 임시국회 본회의 취소 13일 본회의 개최 선거법 우선처리 검토...한국당 입장 변화 주목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전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전망됐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의 개회가 취소된 가운데 여야는 몰밀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며 하루 이틀 정도 조정국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 상정 체제에 돌입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추태는 더 바꿀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자유한국당의 '세금도둑', '날치기'라는 주장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를 신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1~2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한국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혁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시도할 경우에 대비, 민주당은 3~4일 기간의 '조끼 임시국회' 전술로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은 4+1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전날 밤 12시까지 산회한 본회의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 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 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4+1 공조가 재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나선다 한들 법안 처리를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 4+1 협의체를 무력화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의견을 반영해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 한국당이 항의한 것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



이해찬 "모든 수단 동원해 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송갑석, 내년 광주·전남 예산 확보 맹활약

전해철·서삼석과 찰떡 공조 기재부 설득 총력전 5·18 40주년·AI 단지 조성·신성장 분야 등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송갑석 의원(서구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데 맹활약을 펼쳤다. 우선 광주시의 국비 예산이 정부안보다 1128억원 증액되면서 사상 최초로 '국비 2조 5000억원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송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송 의원은 민주당 계열 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의 찰떡 공조를 통해 막판까지 기재부를 설득,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100대 문제 사업'으로 공세를 벌였던 '인공지능(AI) 중

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기존 정부안에서 200억원을 증액, 2020년 사업비 626억원을 확정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관련 예산도 정부안 25억원의 4배를 훌쩍 넘어서는 107억원을 확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여기에 AI 실무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등 광주시의 핵심 산업 16건, 402억원의 예산 확보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220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230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0억원) 등 주요 SOC 사업 증액에도 송 의원의 노력이 숨어있다는 평가다.



전남도 예산은 85건의 사업 4635억원이 증액, 사상 최초로 국비 7조원을 돌파했는데 이를 위해 송 의원은 당 지도부와 의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예결위원회를 뒷바라지했다.

송 의원은 전남도 핵심 시책인 블루이코노미 및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 주요사업 예산 66건, 553억원이 증액되는데도 전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힘들었지만 성과가 있어 뿌듯하다"며 "이번 예산 증액이 광주와 전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 및 현안사업 추진에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5선 원혜영 3선 백재현 총선 불출마

더불어민주당 5선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의원과 3선 백재현(경기 광명시 갑) 의원이 1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소회와 불출마 결심을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두 의원의 불출마 '유단'이 민주당 내 '중진 용퇴'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이철희(비례대표)·표창원(경기 용인시정)·이용득(비례대표) 의원 등 초선들뿐이다.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서형수(경남 양산시) 의원과 김성수·제윤경·최은열(이상 비례대표) 의원 등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원혜영 의원은 "총선 준비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많은 현안에 직면해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한 헌정이 대한민국 제1의 공기업으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감사는 "한전에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전과 지역사회가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가족처럼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것이며, 광주와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靑,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국회, 30일까지 청문회 마치고 경과보고서 보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이정희 "광주·전남을 에너지 신산업 메카 만들 것"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이 11일 퇴임했다. 이감사는 이날 가진 퇴임식에서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많은 현안에 직면해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한 헌정이 대한민국 제1의 공기업으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감사는 "한전에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전과 지역사회가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가족처럼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것이며, 광주와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8월 취임한 이감사의 임기(2년)는 내년 8월까지지만 이번 21대 총선 출마 준비로 중도 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동남갑에 출마할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명진 "DJ 철학 계승 뉴DJ 정치로 호남정치 복원"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 서구갑 준비위원장(11일)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고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하는 뉴 DJ 정치로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호남 집권 항로에 난관과 무기력의 빙하를 깨고 뱃길을 여는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도 대통령을 만들고 집권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호남이 주도하는 개혁연대를 만들어 호남 개혁 정치가 한국 정치를 다시 이끄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특보단 간사와 김대중 대통령 인수 이행장관, 국민의당 당 대표 비서실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빈 "광주 정치 풍토 전환... 권력을 국민 품으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11일)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며 "오직 시민의 뜻을 받들고 민생에 답하는 정치로 광주 정치 풍토를 새롭게 전환하고 모든 권력을 국민 품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폐 정치와 정치 공해를 과감히 도려내고 기존 정치 문법이나

방식을 과감히 초월해 정치 개혁, 삶의 변화, 사회 혁신을 바라는 정의로운 시민을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 비정규직센터 이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박올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 공 장** ▶ 광주 서구 매월동 토지 : 1170(353.925평) 건물 : 881.9㎡(266.775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7억2천4백4십만원, 최저가 (70%) 12억7백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최저가 (70%) 7억2천2백6십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1천8백5십만원**
- 근린주택** ▶ 광주 동구 장동 87-2번지 토지 : 125.6㎡(38평) 건물 : 214.44㎡(64.9평) 동명동 메인상권 지상3층 **감정가 4억1천4백만원, 최저가 4억1천4백만원**
- 아 파트** ▶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70%) 3억9천2백만원**
- 아 파트** ▶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70%)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